

VOICES SEEN, IMAGES HEARD
보이는 목소리, 들리는 이미지

린다 C.H. 라이 | 홍콩, 중국 | 2009년 | 28분 | 트랜스미디어스케이프
Apr 11 / AR5 / 17:30 Apr 13 / AR4 / 11:30



4

역사를 모아,
나를 들여다
보기



린다 C.H. 라이

Voices Seen, Images Heard 목소리는 들리는 것이고 이미지는 보이는 것이라는 통념을 전복시켜 관객을 일깨우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지를 보려고만 하지, 느끼거나 들으려 하지는 않지요. 저는 이미지와 오디오가 공존하며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작업을 해요. 제목에 그러한 제 생각이 반영되어 있어요.

1930's 작품 속에서 홍콩의 과거를 묘사하기 위해 1930년대를 집중 조명했어요. 사실, 1930년대 초에 홍콩에서는 영화가 거의 제작되지 않았죠. 하지만 1935년을 기점으로 '쇼브라더스'라는 영화 제작사에 의해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특히 1939년은 홍콩 영화사에 있어 주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자료를 많이 이용해 과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홍콩의 과거를 서술할 때 1930년대에 의존하게 된 것이죠. 저는 감독이자 역사학자로서 그 당시의 영화나 글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소소한 역사적 파편이라도 그것을 이용하면 홍콩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요.

Slow & Fast Motion 실제 영화에서 사용했던 많은 자료를 원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화면의 속도감을 조절해서, 그 순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두려고 했어요. 많은 장면에서 슬로우 모션이나 패스트 모션을 사용한 이유도 관객들이 해당 장면을 집중하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페리선 위에서의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어떤 장면을 말하는지 알겠네요(웃음). 항구도시로 개발되는 홍콩의 모습을 페리선 위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슬로우 모션과 함께 역방향으로 재편집해 강조해봤어요. 하지만 그 장면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웃음). 단지 관객들을 위한 재미 정도로 설정해봤던 장면이었죠. 그래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대단하네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 자체도 홍콩의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장면에서조차 여러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ollage Film 제 생각엔 이 작품은 영화라기 보다는 일종의 현대미술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현대미술 중에서 도 20세기에 주로 사용된 콜라주 기법을 사용해서 이 작품을 제작했어요. 일반적인 콜라주 아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티스트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단편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작품에 모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죠. 이번 작품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도 제가 수집한 다양한 스타일 이미지를 앤니메이션과 같은 무빙 이미지로 변환하는 작업이었어요. 이 작업 때문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Collecting 이 작품은 1934년에 당대 영화계에서는 홍콩의 역사를 어떻게 담고 있는가에 대한 제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위해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동영상과 사진들을 수집하고 작업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네요. 1939년 당시, 한 네덜란드인이 홍콩의 영상과 사진 기록을 남긴 것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자료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작업하는 중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종종 느끼는데 그 점이 많이 아쉬워요. 과거의 자료에는 여성이라든가 노동자, 외국인을 찍은 사진 등이 적었거든요.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흥미로워했던 것들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죠. 촬영기법이라든가 풍경이 카메라에 어떻게 담기는지가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지, 무엇을 찍을 것이냐의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사진 자료보다 더 구하기 힘든 것이 오디오 자료입니다. 주로 당대의 헐리우드 영화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얻게 되는데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1930년대에 유행했던 포크 음악 자료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 특히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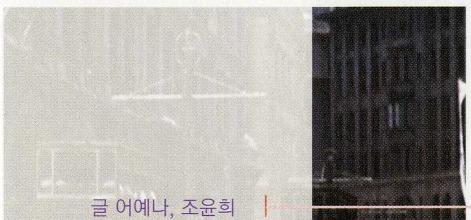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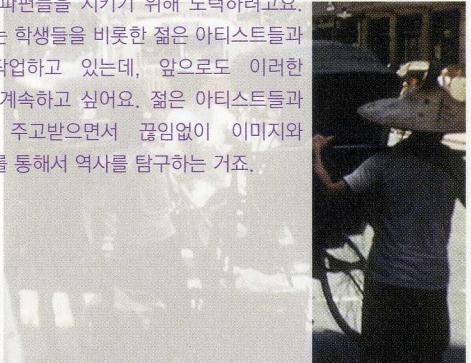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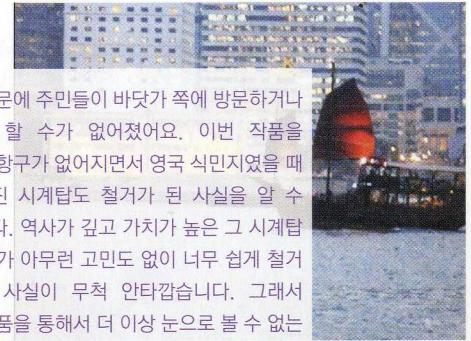
Another HONGKONG 홍콩이 쇼핑천국이라든지 자본주의의 중심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쇼핑만을 위해 홍콩에 오는 건 아니죠. 저는 어디를 찾아가야 할 때 가이드북에 알려진 홍콩의 거리를 일부러 피해서 걸어 다닌 경험 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각기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한국 관객들이 홍콩을 방문했을 때, 가이드북에서 벗어난 홍콩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시선에서 홍콩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이 각자의 새로운 홍콩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Identity 저는 홍콩에서 나고 자랐어요. 1세대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지만 저를 홍콩인, 여러분들을 한국인으로만 규정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더라도 모두 생김새도, 성격도, 가치관도 다르잖아요? 누구나 개성을 갖고 각자의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듯이 스스로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되고 싶지는 않아요.

Next project 이번에 상영하게 된 〈보이는 목소리, 들리는 이미지〉는 홍콩에 관한 연작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작품이에요. 다른 작품들도 이미지와 오디오를 통한 역사 구성을 주제로 만들 예정이고요. 모두 다섯 개의 프로젝트 인데, 모두 완성하는데 6년 정도 소요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스틸사진을 이용한 'thick description'의 구현입니다. 이는 인류학에서 쓰이는 말인데, 사진 한 장을 보고 설명 할 수 있는 것이 한 층 한 층 두터워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세 번째 프로젝트는 항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홍콩은 서울의 한강처럼 빅토리아 항구를 사이에 두고 두 지역으로 나눠죠. 빅토리아 항구는 150년의 역사를 지닌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인데 그곳을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기에 일반인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안타깝게도 현재, 그 항구를 철거하고 그 위에 고속도로를 건설 중입니다. 항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닷가 쪽에 방문하거나 산책을 할 수가 없어졌어요.

쳤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닷가 쪽에 방문하거나 산책을 할 수가 없어졌어요. 이번 작품을 보시면 항구가 없어지면서 영국 식민지였을 때 만들어진 시계탑도 철거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깊고 가치가 높은 그 시계탑을 정부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너무 쉽게 철거했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을 통해서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역사의 파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려고요. 최근에는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계속하고 싶어요. 젊은 아티스트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이미지와 오디오를 통해서 역사를 탐구하는 거죠.



글 어예나, 조윤희 |



프리뷰



〈블레스드〉Bles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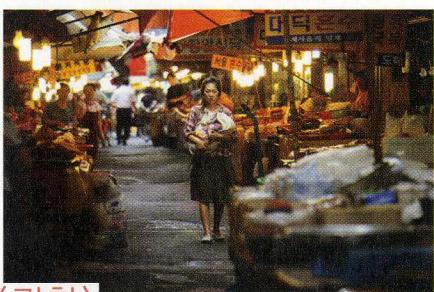
애나 코킨노스 | 오스트레일리아 | 2009년 | 115분 | 쟁점: 모성에 대한 질문

〈블레스드〉는 하나의 이야기를 7명의 아이들과 그의 부모들의 시점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다소 흥미로운 구성을 보여준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 사람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않는다. 하루 동안 각각의 주인공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관계없이 나열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숨겨졌던 내용을 새롭게 등장시켜 이야기를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든다. 스테이시와 오션 남매는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며칠을 헤매고 돌아다니며, 친구사이인 카트리나와 트리사는 엄마가 납품할 옷을 훔쳐 입고, 쇼핑몰에서 옷을 훔치는 등 일탈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한편,

카트리나의 엄마인 비앙카는 도박에 빠져 돈을 날리기도 하고, 다니엘의 아빠인 피터는 솔집에서 처음 본 여자에게 돈을 펴주기도 한다.

극 중 초반 아이들의 시선만 볼 때는 철없는 10대 청소년들의 시시껄렁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부모 편의 내용이 더해지면서 아이들의 일탈행위의 이유가 어느 정도 정당화되기도 한다. 영화는 자식과 부모의 를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모습을 강조한다기보다,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감성을 가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다.

글 민혜원 |



〈귀향〉A Blind River

안선경 | 한국 | 2009년 | 112분 | 쟁점: 모성에 대한 질문

선택 받은 여성만이 '모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귀향〉은 생모를 찾아 한국으로 온 루카스의 여정과 미혼모들의 현실을 움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준다. 입양기관에서 외연받고 홀로 떠나 머물게 된 모델에서 성녀를 만나게 된 루카스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버렸던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인을 저질러온 성녀는 루카스를 인정하지 못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같은 시각, 또다시 미혼모들의 태아는 죽거나 혹은 축복받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난다. 출산과 죽음으로 고통받는 미혼모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도와드린다'는 말보다, 딱딱한 문을 열고 이루어지는 소통일 터. 하지만 한국 사회는 모성보다 진하다는 현실성을 강조하며 이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만다. 말이 통하지 않는 단절을 느끼는 입양아와, 말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통 사이에서 부유하는 미혼모의 삶은 결국 돌고 돌아 서로에게 '귀향'하게 된다.

글 정아라 |